

<자기소개서>

안녕하세요. 프로그래머를 지망하는 권혜지라고 합니다.

저는 대학 졸업 후 일본 간사이 국제 공항에서 지상직 승무원으로 근무했습니다. 공항, 항공사를 아울러 소통하는 업무에 큰 만족을 느끼고 열심히 근무했지만,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장기 결항이 점점 길어져 재계약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귀국한 후에는 국립현대미술관 덕수궁에서 안내데스크 업무를 하며 현장 자문단으로도 활동했으며, 일하는 기간 동안 기술적인 역량을 탄탄히 하고자 바리스타 자격증을 취득해 카페 겸 미술관인 복합문화공간에서 단기간 일하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맥파이앤파이거' 티룸에서 약 3년간 부매니저로 근무했습니다. 동아시아 차를 소개하고 다양한 차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차 애호가와 외국인 관광객 등 다양한 고객이 방문하는 곳이었습니다.

이 기간 '친절함'이 인상적이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근무기간 동안 4.88 이상의 높은 네이버 리뷰 평점을 유지했습니다. 사내에서도 CS 관련으로 인정을 받으며 일본 인플루언서들과 협력해 관광객을 초청하는 이벤트를 담당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 출입국 시스템이 '비짓재팬(Visit Japan Web)'으로 디지털화된 것을 보고 IT산업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번거로웠던 출입국 서류 작업을 하나의 웹 플랫폼으로 통합해 출입국 관리가 편리해지고 시간도 단축되었습니다. IT가 시스템의 불편을 해소하고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강력한 분야라는 것을 인식하게 된 계기였습니다.

이러한 IT기술의 무한한 적용 가능성에 유망함을 느끼고 웹디자인(퍼블리셔), 프론트엔드 기초를 배우는 수업을 통해 실질적으로 활용 가능한 기능과 조금씩 언어에 대한 이해도를 키우고 있습니다. 기술을 비롯해,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고 쾌적한 사용자 경험을 설계할 수 있는 개발자가 되기 위해 노력 중입니다.

비전공자이기에 더 성실하게 임하고 있습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마지막 과제인 팀프로젝트까지 마무리했습니다.

앞으로 더욱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일본에서 일하고 싶은 이유>

일본에서 일을 하고 싶은 가장 큰 이유는 한국보다 넓은 채용 기회와 성장에 대한 메리트를 느꼈기 때문입니다.

현재 일본은 많은 회사에서 자체 시스템 개발을 위한 내재화 전략을 취하며 프로그래머에 대한 수요가 높아졌습니다. 한국의 경우 소수의 기업을 제외하면 채용문이 줄지만, 일본에서는 역량 있는 신입에게도 폭넓은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은 한국에 비해서 IT 기술을 통해 혁신을 창출할 수 있는 미개척 시장이 큽니다. 서비스의 불편과 불합리를 해결하는 작업, 레거시 시스템을 혁신하는 DX 프로젝트가 일본 산업 전반에 걸쳐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사용하기 쉽고 뛰어난 플랫폼을 직접 구축하고 운영하는 경험을 통해 기술적 숙련도를 크게 성장시킬 수 있는 기회를 잡고 싶습니다.

<프로그램 개발 경험(자격증, 경험, 학습방법, 실제 스킬을 사용한 경험>

올해 9월~12월 수강했던 K-디지털 트레이닝(국기 과정) '생성형 AI활용(스테이블 디퓨전) 모던 웹 실무자 육성' 수업에서는 HTML5&CSS, javascript&Jquery, React.js, Redux,

TypeScript, Figma를 정규교과로 두고 BootStrap, GitHub와 같은 부차적인 교과를 교육합니다. 최종과제는 팀프로젝트로 작업했습니다.

과제로 구성된 포트폴리오를 첨부드립니다. 기회가 생긴다면 더 발전된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포트폴리오 링크:

👉 <https://portfolio-neon-three-rieqiq9d8.vercel.app/>

<그 외 어필하고 싶은 부분 - 학습계획>

수업에서 기술적 측면에서는 React 기반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다음과 같은 기술들을 학습했습니다.

- React Router를 활용한 효율적인 라우팅 및 페이지 관리.
- Axios 등을 이용한 API 연동과 데이터 처리.
- Redux 등 라이브러리를 활용한 전역 상태 관리 기술.
- Hooks를 활용한 함수형 컴포넌트의 심층적 이해와 활용.
- Figma를 활용한 웹/앱 레이아웃 제작.

3개월간 수업에서 CSS 기술을 집중적으로 강화했습니다. 단순히 기능을 구현하는 것을 넘어, 반응형 웹 디자인을 적용하고 UI/UX 완성도를 높였습니다.

팀 협업은 GitHub를 통해 실제 현업과 유사한 공유 작업 관리 프로세스를 익히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개인의 성장을 위해 온라인 코딩 교육 플랫폼 코드잇에서 UI 디자인 관련 강의를 수강중입니다.